



# 이미향, 스코티시오펜 우승

### 최종일 버디 7개 보기 1개 6언더파 66타...LPGA 투어 2승 달성

한국 여자골프는 3주 연속 우승과 함께 올 시즌 2개 대회 중 11승을 거두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미향은 30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노스에이서 던도널드 링크스 코스(파72·6390야드)에서 벌어진 LPGA 투어 '해바딘 에셋 매니지먼트 레이디스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15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하며 허미정(28·대방건설)과 캐리 웹(호주·이상 5언더파 283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2년 투어에 데뷔한 이미향은 지난 2014년 11월 7일 비즈노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통산 2승째를 달성하게 됐다.

이미향의 우승으로 한국 여자 골프는 US여자오픈과 바리본 클래식 이어 이번 대회까지 3주 연속 우승과

함께 올 시즌 2개 대회 중 절반이 넘는 11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인 지난 2015년 15승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 2라운드 4오버파로 부진했던 이미향은 전날 4타를 줄이며 이븐파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공통 선두로 출발한 웹과 김세영(24·미래에셋)에 6타 뒤진 상황이라 역전 우승까지는 힘들어 보였다.

그러나 이미향은 1번 홀(파4) 버디로 시작해 2번 홀(파4)에서도 연속 버디에 성공하며 산뜻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4번 홀(파3)에서 보기를 했지만 5번 홀(파5) 버디로 만회한 뒤 6, 7번 홀에서도 연속해서 타수를 줄였다.

전반 마지막 9번 홀(파4) 역시 안정된 타수를 바탕으로 1타를 더 줄인 이미향은 웹이 전반에 1타를 잃는 사이 공동 선두까지 치고 올라갔다.

마지막 18번 홀(파5)을 남겨둔 상황

에서 이미향은 이날 6타를 줄이며 5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마친 허미정과 나란히 공동 선두에 복귀했다.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디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 1.5m 거리의 퍼팅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후반 유일한 버디로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반면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웹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이글이 필요했지만 버디에 그치면서 이미향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미향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다음주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인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을 앞두고 비슷한 환경인 링크스 코스에서 우승하며 강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됐다.

US여자오픈에서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탄 허미정도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타를 줄인 끝에 공동 2위로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김민근기자

## KIA, 구원왕 출신 김세현 트레이드 영입... 불펜 보강

트레이드 마감일 선두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 구원왕 출신 김세현(30)을 영입하며 불펜을 대폭 보강했다.

KIA 타이거즈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좌투수 손동욱(28)과 이승호(18)를 넥센 히어로즈에 내주고 김세현과 외야수 유재선(30)을 받아들이는 2대 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입한 김세현은 2006년 현대에 2차 2라운드 16순위로 입단 울

해까지 12년 동안 넥센에서 주축 투수로 활약했다.

프로 통산 성적은 206경기 27승 31패 46세이브 15홀드 평균자책점 5.04으로 크게 인상적인 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2승 무패 36세이브 평균자책점 2.60으로 생애 첫 구원 부문 1위를 했다.

올 시즌에는 마무리와 불펜을 오가며 27경기에 나와 1승 3패 10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6.83을 기록 중이다.

선수를 질주 중인 KIA는 올 시즌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불펜을 강화했다.

또 넥센에서 주로 대주자로 활약한 외야수 유재선을 받아들이면서 작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KIA 구단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중간계투진과 백업 외야수를 보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 MLB 류현진, SF전 7이닝 무실점 투구

### 시즌 4승은 불발 시즌 평균자책점 3.83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0·LA 다저스)이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보이기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류현진은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지안츠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이날 류현진은 7이닝 5피안타 7탈삼진 1볼넷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다.

직구와 체인지업 위주의 피칭으로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았다.

그러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4승 달성은 다음으로 미뤘다.

류현진이 올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실점 없이 경기를 끝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3.83으로 끌어내렸다.

이날 류현진은 3루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전한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볼타를 이끌어내 관중들을 거뒀다.

류현진은 1회초부터 날카로운 직구와 변화구를 선보였다.

140km대 중반의 직구와 체인지업, 커터 등으로 상대의 타격감을 흔들었다.

첫 타자 디안드 스펠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다음타자 조 패니마저 2구 만에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침적’ 헨터 펜스를 상대로는 빠르게 꺾이는 커터로 파울타를 유도해 삼진을 이끌어냈다.

뒤러 6구 만에 이닝을 종료했다.

류현진은 3회 첫 타자 고키스 에르난데스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다음타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이 31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지안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자 매디슨 범가너를 1구 만에 3루수 앞 땅볼을 유도해 병살타를 만들어냈다. 이후 스펠을 2루수 앞 땅볼을 처리했다.

4회에도 병살타를 이끌어냈다. 무사 1루에서 펜스를 상대로 2루수 앞 병살타를 만든 류현진은 포지를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했다.

4회까지 투구수가 48개에 불과했다. 류현진은 5회 투구에서는 삼자범퇴를 이끌어냈다.

특히 황재균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는 3구 삼진을 기록했다.

비탈쪽으로 낮게 깔리는 체인지업으로 황재균을 속였다.

류현진은 6회 포디시 병살타를 유도했다. 1사 후 범가너에게 안타를 허용한 후 스펠을 유격수 앞 병살타로 잡아냈다.

7회에는 호수비의 도움도 받았다. 류현진은 패니마저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1사 1,3루 위기에 놓였

다. 이어 크로포드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이 때 태그업을 시도한 3루수자 패니를 다저스 중견수 키케 에르난데스가 정확한 홈송구로 잡아내 실점을 막았다.

류현진은 7회말 타석에서 야스마니 그랜달로 교체됐다.

이날 투구수는 85개(스트라이크 52개)밖에 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는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50으로 낮아졌다.

황재균은 이날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후 교체됐다. 시즌 타율은 0.152로 떨어졌다.

다저스는 0-1로 끌려가던 9회말 야시엘 푸이그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후 연장 11회 대타 카일 파머의 끝내기 2타점 2루타에 힘입어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김민근기자

## 위너, 4개월 만에 컴백... 더블 타이틀곡 ‘럽미럽미’ · ‘아일랜드’ 발표

YG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보이그룹 '위너'가 활동을 가속화한다.

31일 YG에 따르면 위너는 4개월 만에 오는 8월4일 오후 4시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더블 타이틀곡 '럽미럽미(LOVE ME LOVE ME)'와 '아일랜드(ISLAND)'로 활동을 예고했다.

디스코 장르를 위너식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가한 '럽미럽미'는 위너 멤버들이 만들었다. 강승윤, 송민호, 이승훈이 작사를 맡았다.

강승윤, 송민호, YG 프로듀싱팀 퓨처 비운스가 작곡했다.

'섬'이라는 소재를 가사에 녹여낸 '아일랜드'는 로맨틱한 감성을 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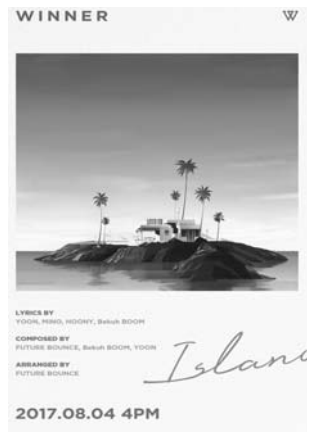
댄스홀, 트로피컬 장르의 곡이다.

역시 위너의 자작곡이다. 강승윤, 송민호, 이승훈 그리고 베카 봄이 작사를, 강승윤과 퓨처 비운스, 베카 봄이 작곡했다.

YG는 "'아일랜드'라는 곡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포스터에는 휴양지 느낌이 가득한 섬 일러스트가 담겨 있다"며 "'럽미럽미'에 이어 이번 위너의 컴백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어줄 곡들"이라고 예고했다.

4개월 만에 컴백하는 위너는 이번 컴백에서도 숫자 4를 내세웠다.

이번에도 8월 4일 오후 4시에 신곡을 발표한다.



/뉴스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